<경쟁'94 :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을 다시 생각한다(II)

중국과 한국은 과연 어떠한 관계인가. 적대적인가, 아니면 동반자적 관계인가. 아마도 중국을 적대적으로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않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 한중간의 역사적 사실이 중국을 적대적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로 비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현대사에 있어서 6.25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도 중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우방이고 후원자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를 발전시켰고 과거 임진왜란 때에는 명군이 나서 일본의 침략을 저지, 나라를 수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일본을 상대로 싸운 것이 조선과 조선인의 안녕을 지켜주기 위해서만이 아님은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과거 사대주의가 온통 들끓던 시대에는 중국이 조선의 보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국을 숭배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에 까지 그러한 사고방식에 젖어있을 필요는 없다.

만리장성의 위용과 자금성의 호화찬란함 앞에 무릎꿇고 조공을 받치던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대등한 관계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며, 정치적으로도 호혜평등의 기본정신아래 주변국으로서 상호 협조하고 견제하는 위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입장에서, 특히 화학산업의 입장에서 중국은 그리 간단히 결론내릴만한 존재는 아니다. 상호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겠지만, 그 원칙이 일방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단기적인 것이어서도 아니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시 조명해보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고 가격경쟁력이 있어 일본이나 미국 유럽을 물리치고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익이 있으면 투자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예 진출하지 않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화학경제연구원은 15억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인식, 한중간의 화학산업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상호 협조하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화학공업부와 한중 화학산업 협력방안의 기본틀을 마련하자는데 합의, 구체적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13일 중국 화학공업부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국 화학산업을 시찰하고 마침 뻬이징에서 개최된 '94국제화공전람회를 참관했다.

이번 방중은 상당한 보람이 있었음을 화학산업계에 말하고 싶다. 그것은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중국을 직접 체험한 것외에도 산업계가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중국 화학공업부 대외합작국 성혼전국장과의 장시간에 걸친 협력방안 논의에서는 물론이고 만찬석상에서 털어놓은 중국의 불만과 한국에 대한 인식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중국은 경제개방이후 경제산업 부흥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화학산업 부문에서는 자급을 위한 투자와 부분적인 수출산업화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내의 왕성한 수요증가를 메우기 위해 외국과의 합작등 국제협력에 열성이며, 미국 유럽 및 일본의 화학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대외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이 긴요한 것으로 인식,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본과는 과거의 정치적인 앙금이 해소되지 않았고 견제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러나 한국과는 국민적 정서가 우호적이고 견제가 쉽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음이 분명했다.

심지어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아야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에 일본을 뒤로하고 주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않겠느냐는 정서를 표현하기도 한 것이다. 정부 관료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배경을 우리는 주의깊게 헤아려야 하며, 여기에서 우리의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한국 화학산업계가 합작 및 단독투자 형식의 중국 진출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 각종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화학무역에 있어서도 합성수지 등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정제인산 소다회 액체가성소다 등 무기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으로 규제 화학무역에 있어 심한 불균형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다.
즉, 중국 화학산업계는 이제 겨우 산업적 틀을 잡아가는 마당에 우호적인 협력이 아닌 좋지못한 방법의 제재라는 점에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가 조만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산업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국 화학산업계에 자라잡아가고 있음도 느낄 수 있었다.
호혜평등이 아닌 일방적인 교류와 협력은 이상이며, 기업 개개의 이해와 함께 산업적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우리의 화학산업계는 충분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세계 각국으로 부터 경원당하고 있다는 점, 중국이 한국과 어떠한 관계이어야 한다는 점 충분히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4/10/10>